100세 인생 설계

박영숙 한국미래연구원 이사장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교 유리학자인 '사라 콘래드'라는 신조어가 화자되면서 불어닥친 초기 고령화 현상이 이곳도 생계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년층에게 완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무렵 우리에게 다가온 대세는 숫자는 우리국민의 평균수명이 지난 40년간에 20세로의 드라마틱한 증가에 더욱 빨라져 앞서 않은 100세의 수명을 느리게 달성이라는 통계와 발표에서였다. 그것은 우리에게 화갑후의 삶이 더 길어졌다는 기술의 발달로 180세수명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미국의 어떤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우리들은 물론 장수를 누리게 되었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한국인은 인류가 바라던 바람이 바로 수명이 길어 스러운라고 하는것이 축복받은 일이라고 여겨졌으며 '재앙'이라고 지칭되기 까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지금의 추세대로 라면 2019년에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동하는데 각각 115년과 40년이 걸린데 비하면 19년과 7년이라는 고령화속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고령화추세가 세계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더불어 불거진 문제들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리라는데서 국가의 심각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개인의 인생설계에도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젊은학생인 최재천 교수가 되면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 하라'는 책에서 이제 100세를 초고령화시대를 예측하면서 인생을 전후기로 나누어서 전반부를 자기역할을 먹고사는 문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삶이라면 후반부는 자기의 보람을 찾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권유한것은 50세 이후의 30~50년 후기삶을 위해 전반부의 삶에서 적어도 10년간은 자신을 위해 투자해서 필요한 공부도 하고 노는법도 익히고 함께 늙어갈 친구관계도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한다. 그런점에서 최교수는 '행복디자이너'라고 했듯 100세의 장수를 즐기는 하버드 리처드 레빈 교수가 자랑스러운 젊은이들로 부터 사회공익을 위한 리더십을 배우고 참가하는것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이라 한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최교수의 말에서 보는 50대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 고수'가 되려면 ① 취미를 여러 개 가져보고, ②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③ 노는법을 배우고, ④ 행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⑤ 자유시간의 많은 시간을 창조적으로 보내고, ⑥ 눈고개 높게 목표를 세우고, ⑦ 고독과 친구하는 법을 배우고, ⑧ 정의 리더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⑨ 배우자를 감동할 선물을 챙기고, ⑩ 행복의 원천을 자기 자신에게 찾아야 한다는 등이다. 이들은 다같이 지혜로운 책임의 대물림의 지혜를 얻고 자기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하고 지금을 용서해 나은 인생의 보람찬 '진정한 삶'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미래 청사진 못했던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자립으로 사는 관점을 얻는 열쇠들이라고 할수있다.

100세인생을 설계한다는 말보다 더이상 부모님께 봉양을 받아 내는 일이 없도록 이미 늙어 버린 자기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수 있을까 하는 삶의 목적을 갖게 하는 것이다. 내가 존경해 마지않는 괴테의 명언을 곱씹어 보고 싶다.

하나의 계약과 3년간 이화대학교 창립기념행사에서 104세의 동문을 만났을 때 이런 이분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역사속의 인물로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 앞에서 일년후에 이화인으로서 후배들을 함께 하였으며 그분께서 강건한 모습으로 3.1운동 기념회에서 참석하고 있어서 마주앉아 우리들앞에서 찰흙을 이리 일하게 낭랑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감동을 지금도 새롭다. 또하나의 계약은 2년전에 우리나라를 빛내셨던 터너 드러키 교수의 94세의 부인의 도리스 드러키여사를 알게 된데에서 였다. 전화에 작고한 남편을 대신해서 우리나라의 '터너 드러키 소나이터' 출범식에 참여하기위해 내한 한것이다.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온 노부인은 오랜만에 기러기를, 그리고 오후에는 지난 3년간에 걸친 심포지움에 참여하셨다. 그것도 그러하게는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학술대회 한번도 빠지지 않으셨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초청인사 명단에 맨앞으로 최고, 전체 되는 내용도 깜짝하고 몸에도 젊은이 못지 않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는이들로 하여금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신체들을 지니게 되기 이들러에는 70세를 넘어서 꽃피운 인생이 있는가하면 평생을 한역으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특출한 사람들보다 이런 보통사람들이 참맛한 생활한방을 구복하고 참사람으로의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주어진 생명의 어느한순간을 그저 시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는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느끼는것을 남에게 그러기를 일깨워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일찍부터 설계한 삶을 살아왔고 생을 마칠때까지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기로 한 사람들이다. 이들에는 '은퇴'라는 '정년'은 없는 것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리듬을 찾아 변모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이들은 늙을때까지 삶을 설계한 사람들로서 이들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직장인들이 몸담고 있던 생업에서 은퇴하여 여가생활로 나아가는 공백감을 이기지 못해 방황을 하게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심하게 겪는다고 한다. 여성들은 주변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무엇인가 찾아내고 즐거운 취미를 만들어 내는 일에 있어서 훨씬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죽을때까지 일하게 된다고 한다. 다른사람에서도 이들처럼 다양한 경험들이 레크리에이션을 보장받고 사회복지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학창시절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삶의 양식은 다양하다. 특별한 목표없이 사는사람, 재능과 취미를 찾는 일에 계속 일하는 법, 취미생활을 만끽하는법, 자원봉사로서 자신의 소득을 나누어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방법을 학교에서 교육하여 가르쳐주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여 학습하여 지속가능한 삶이 될수 있을것이다.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제2의 삶을 위해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직종을 찾아 나서게 된다. 그것은 자영업이 될수도, 취미에 부응한 '사회적 기업'일수도 있다. 이들의 업종이 다양하든 활동을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아니다 라고 하는 척도로 삼아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이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회의 활력을 더하게 된다. 무지하고 있는데서 오는 불행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사회구성원의 모두는 확대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제2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과 경험은 지금보다 고령화 사회가 보급해야 할 재능들을 잘 재활용 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에는 이미 국무총리실 산하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금이다.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하는 여성취업 구성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확대와 고령화문제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 ②